

보도자료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1051-9 3층 / 홈페이지 : <http://www.chingune.or.kr/> / 문의 : 센터장 조영관 (010 - 8848 - 7828)

영화 「청년경찰」 소송 법원 화해 권고 결정 제작사 <무비락> 원고들에게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법원이 영화 ‘청년경찰’의 제작사 <무비락>에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꼈을 원고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고 권고했다. 원고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할 것을 권고했다.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최종 확정되었고, 영화 제작사 <무비락>은 지난 4월 원고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 2017년 제작된 영화 ‘청년경찰’은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는 대림동 지역을 그대로 영화의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소재를 사용하여 대림동을 경찰도 포기한 범죄의 소굴로 묘사하고 조선족 동포들을 조직적인 범죄 집단으로 그려내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 이후,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과 지역주민 60여명은 2017년 영화 제작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인종차별적 표현물인 이 사건 영화를 제작·배급·상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 타인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집단적·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행복추구권 등 침해를 입었고, 절망감·공포감 등 사회생활의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 1심 법원(2017가단5245081)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항소심 법원(2018나6527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 민사부,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마은혁, 판사 강화석)은 지난 2020년 3월 16일 ①영화 ‘청년경찰’의 일부 내용에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담은 허구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②비록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영화감독 또한 의도와 다르게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도 있는 점, ④피고 또한 본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낀 원고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제작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권고 하였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 수용하여 확정되었다.

□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영화 제작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외국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법부의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법원이 피고 제작사에게 사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한 것은, 그 동안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와 언론에서 조선족 동포를 비롯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 혐오적 묘사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오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한다. 단지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한 피고 제작사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번 법원의 결정의 취지를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

※ 첨부 - 항소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피고 제작사가 발송한 사과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9 - 2 민 사 부

화 해 권 고 결 정

사 건 2018나6527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 법무법인 덕수(역삼동, 흥국생명빌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조영관, 이형준)¹⁾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무비락

서울 서초구 능안말2길 15 2층(내곡동)

대표이사 김재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정요진)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1. 김숙자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1) 별지 원고들 목록 1. 김숙자와 2. 김숙자는 동일인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별지 원고들 목록 2 내지 62에 대한 위임장만 제출하였지만 원고 1. 김숙자를 포함한 원고들 전체의 소송대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2 내지 62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3. 피고는 '청년경찰'이라는 영화에서 본의 아니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원고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
4. 원고는 '청년경찰'이라는 영화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5.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가. 피고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인 '청년경찰'을 상영함으로써 원고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 타인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집단적·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를 입었고, 절망감, 공포감, 사회생활의 지장을 초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1.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1. 김숙자와 2. 김숙자는 동일인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1. 김숙자의 소는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한다.²⁾
2. '청년경찰'(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일부 내용에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담은 허구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비록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화감독 또한 의도와 다르게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도 있는 점, 피고 또한 본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낀 원고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20. 3. 16.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마은혁



 판사 강화석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

2) 원고들의 소송대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2020.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홍혜영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 신 주식회사 무비락 대표이사 김재중

수 신 김숙자 외61

참 조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이형준 변호사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 (역삼동, 흥국생명빌딩)

제 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271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사과문

1. 본사는 영화 '청년경찰'에서 본의 아니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원고들(김숙자 외61)께 사과의 뜻을 전달 드립니다.
2. 본사는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 우편물은 2020-04-01
제 314720608852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논현동우체국점

대한민국 KOREA

2020. 4. 1 .

주식회사 무비락

대표이사 김재중

